

美術世界

The First & Highest Monthly Art Magazine

월간 미술세계 매월 30일 발행 1999년 5월 30일 제16권(총권 175호)1984년 4월 30일 등록 라-2879호

ARTWORLD



특집 / 먹자·임자·놀이 - 미술관에 들어선 일상

- 지금 이 작가는 / 이상원 ■ 작가연구 / 박성태·전성규·김준근
- 생태미학의 가능성 / 급진적 여성주의로부터 생태적 여성주의로
- 특별기고 / 전쟁과 미술

1984년 15주년 기념 1999
6 JUNE

히는 여간 명석한 게 아니었다. 그는 다음날 대청호 기슭에서 있는 「새 인간」에서도 대금을 연주하게 하였다. 국악에 매료된 모양이었다. 앞에서 깨어나서 하늘로 날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는데 짙으로 엮은 웅대한 날개의 거추장스러운 움직임으로 인고의 뜻을 보여주었다.

홍오룡은 그의 퍼포먼스 「돈」에서 얼굴 전체에 돈을 붙였다. 장님처럼 더듬으면서 기를 쓰고 돈을 얼굴에 붙이고는 미친 듯이 날뛰었다. 돈에 눈이 먼 인간, 돈에 미친 인간 바로 우리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헝가리의 이트반 코바츠(Ivan Kovacs)는 진흙이 깔린 보트 모양의 지형에서 「정신을 적시다」라는 행위를 보여주었다. 수영하기 전의 준비운동 같이 주먹을 틀어쥐고 팔뚝, 가슴의 근육을 과시했다. 그리고는 나체로 흙에서 굴렀다. 자학, 회한, 고뇌, 환희 등이 그의 거동에서 눈에 잡혔다.

이태리의 파울 팩터(Paul Peichter)는 「축진」이라는 퍼포먼스를 펼쳐 보였다. 부드러운 흙이 깔린 땅에 싸리나무로 엮은 둥근 구조물과 대나무 삼이 고른 간격으로 지형을 따라 놓여 있었다. 그는 칙으로 엮은 가면을 쓴 채 씨를 뿌리고 삼으로 그것을 떠서 구조물 안에 삽입했다. 그리고는 흙이 채워진 구조물 안으로 올라가 누웠다. 씨가 움트는 흙의 생명 위에 누워있는 것이 세상 어느 것도 부러울 것 같지 않았다.

이태리의 미켈라 페루지오(Michela Pelusio)는 음양의 조화를 역설하는 동양적인 퍼포먼스 「천기(天氣)」를 보여주었다. 그는 숯불과 향을 피우고 짚고, 길고, 굵고, 가는 플라스틱 관을 관객에게 각각 나누어주고 마구 돌리라고 주문했다. 크기와 굵기에 따라 쏟아지는 소리로 송림에 별안간 오만가지 음향이 가득 찼다. 위에는 산내끼로 하늘을 엮어 놓았고 땅에는 달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인의 둔부인양 매끄럽고 풍요로웠다. 여인의 성기와 같은 곳에 고인 물에 손을 씻고 도자기를 빗딴 귀에 담아 둔 그 소리들을 양손으로 형체화 했다. 눈을 감은 명상의 자세였다. 끝나자 손에 물을 묻히고 금가루를 관객들에게 돌아가며 묻혀준다. 무용과 음악과 미술 그리고 관객이 함께하는 교감의 명상이었다.

합숙소에서 가장 높고 우람한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빗으로 비추는 호주의 크레그 왈시의 「자연인」은 이제까지 접해보지 못한 작품이었는데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에 따라 표정이 달라졌다. 악인에게는 악하게 선인에게는 선하게 보

일 것이라고 작가는 덧붙였다.

미국의 팀 커티스(Tim Curtis)가 칙으로 엮어 도당산 기슭에 설치한 「조화」는 우리 선조들의 갓을 짜던 섬세한 솜씨와 비견될 수 있었다. 구조의 고른 짜임새와 형태의 균형이 피부에 와 닿았다. 오스트리아의 알로이스 실드(Alois Schild)의 「사랑의 타자」는 실용성을 겸한 작품이었다. 도당산 놀이공간에 설치된 그 타자에서 사람들은 둘러앉아 편하게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태리의 율마 캄머(Wilma Kammerer)의 「자연 인큐베이터」는 숲속의 새들을 특별 대접하는 새들의 유기적 생활 공간이었다. 둥지 천장에는 모빌이 바람에 흔들리며 자장가를 불러주고 돌이 깔린 네모반듯한 화돌에는 새들이 마실 물이 담겨져 있었다.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이었다.

요세테 카루아나(Josette Cariana)의 「상호작용」은 소나무에 달아 놓은 영락없는 족두리였다. 자연, 인류, 환경의 친화적 교감의 마크라라고 했다.

일본의 기타자와 가즈노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길을 뒀다. 그 「길」은 호수가 보이고 갈대가 우거지고 돌무더기 있어 명상하기에 최적의 은닉된 장소였다.

독일의 롤란드 마이어(Roland Mayer)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포착된 돌의 색깔, 모양, 질감에 이끌렸다. 그는 영혼을 울린 그 인상을 돌을 쪼고 주물과 옹기와 숯으로 「헤쳐 나가다」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네덜란드의 요른 마이어(Jeroen Meijer)가 호숫가에 설치한 용의 등뼈와 상처를 입은 발톱이 어찌나 사실적인지 용의 울음이 금시 진동할 것만 같았다. 제목은 「너의 울음...」이다.

오스트리아의 브리짓트 랑(Brittje Lang)은 대나무에 매료되어 자연과 미래를 대나무로 엮어 호숫가 나무에 걸어 놓은 「초조한 지구」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전쟁의 와중에도 참가한 보스니아의 여류작가 고르다나 안데릭(Gordana Andelic)은 「나의주시(注視)」라는 작품에서 같은 크기의 통나무 2개의 속을 파내어 한쪽에는 피(戰火)를 한쪽에는 신문 아연판(세계의 여론)을 부쳐 도당산에 세우고 내전의 상징물을 늘어놓았다.□



1. 루드빅 프랑크(오스트리아) 「코소보를 위한 진혼곡」
2. 루드빅 프랑크, 브리짓트 랑(오스트리아) 「비엔나 레스토랑」
3. 이트반 코바츠(헝가리) 「정신을 적시다」
4. 미켈라 페루지오(이태리) 「천기」

'99가야고인돌

글·사진/김민군 사진팀 차장

'99가야고인돌조직위원회 집행원장 박성욱이 주최한 제1회 아라가야국제자연예술제 행사의 하나로 <'99가야고인돌>이 경남 함안군 아라와릉과 함안군 일원에서 10개국 국외작가 15명과 국내작가 27명 등 총 42명이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12일간 개최되었다.

함안은 많은 아라가야 고분과 고인돌, 고대산성, 생태늪지, 고찰, 서원 등의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곳으로 특히 함안을 중심으로 한 아라가야는 육가야중 광개토태왕의 침략을 물리칠 정도로 세력이 강하였고 아라궁원에 자리한 왕릉은 능선을 따라 3킬로미터에 걸쳐 35개의 왕릉이 형성되어 있으며 함안군 일원에 소재한 고인돌들은 200여 개가 있을 만큼 우수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유지들은 우수한 문화유산이 주민들의 인식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해 홀대 받고 있음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99가야고인돌>은 예술을 통해 인간과 자연, 그리고 환경 문제를 재인식하고 예술과 지역문화가 축이 되어 함안군이 국제예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뜨거운 몸짓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행사는 국제야외설치미술전과 국제행위예술제, 국제자연예술실내전, 그리고 가야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축으로 심포지엄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 기간중 환경미술실기대회, 사진을 통한 환경전, 자연탐사 및 문화답사, 아라가야 향토문화 자료전, 고인돌예술학교 등을 개최하여 참여작가와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 행사는 매년 5월 개최될 예정이다.□

1. 이츠반 코바치(헝가리) 「삼라만상의 시간」
2. 미켈라 페루지오(이탈리아) 「영원을 향하여」
3. 우징 「다시 입은 옷」
4. 고르도나 안드리치(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꽃을 통해서 현실의 침묵에 지바한 사람들의 영혼을 달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



아라궁원에서 열린 '99가야고인돌' 축제 행사 기념사진

조민길 「재행무상(諸行無常)」



3



4

